

# 경찰관의 조직적 특성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비교 분석

## Comparison of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according to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mong Police Officers

신성원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Seong-Won Sin(police7@dhu.ac.kr)

### 요약

이 연구에서는 경찰관의 조직적인 특성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여 조직적 특성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원변량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계급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경사, 순경·경장, 경위 이상 순이었다.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기간부 집단이 간부 집단보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근무관서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지구대·파출소, 경찰서, 지방경찰청 순이었다. 이는 일선 경찰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외상경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근무부서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생활안전, 수사·형사, 경비·교통, 내근 순이었다. 외근직이 외상경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근직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근무기간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1년 이하, 2-10년, 11-19년, 20년 이상 순이었다. 특히 1년 이하 경찰관의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근무하는 행정구역의 규모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중소도시(50만 이상), 대도시(50만 이상), 광역시 이상, 군단위 이하 순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경찰관 | 조직적 특성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비교 | 분석 |

### Abstract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police officers and the level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he comparative analysis was to check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ccording to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ffect. To accomplish this, a way ANOVA analysis of variance(One-way ANOVA) was conducted.

The department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level,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t was more likely to be exposed to a traumatic experience if who is working in the front-line department.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ccording to the work unit,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The level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outside job unit officers was higher than that of desk job unit officer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ccording to the rank and duration of employment and the administrative district level,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 found.

■ keyword : | Police Officers |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 Comparison | Analysis |

\* 이 논문은 2012년 5월 25일에 개최된 한국콘텐츠학회 2012 춘계종합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접수번호 : #120727-002

심사완료일 : 2012년 08월 22일

접수일자 : 2012년 07월 27일

교신저자 : 신성원, e-mail : police7@dhu.ac.kr

## I. 서론

경찰관, 소방관, 인명구조요원, 의료직 종사자 등 위급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외상사건에 빈번하게 노출되기 쉽다. 즉, 이러한 직업 종사자들은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살인, 폭행, 테러, 자살 등과 같은 사건들을 최초로 목격하게 된다[1].

특히, 경찰관은 근무중 외상사건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총기 및 무기사용 사건, 폭행사건 및 가정폭력의 목격, 사체의 처리 같은 일들에 수시로 개입하게 된다[2].

그러한 사건들은 경찰관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경험하기 쉽게 만든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최근 위급한 상황에 노출되었던 경찰관 중 상당수가 심각한 스트레스를 느끼며, 사기, 장기 결근, 조기 퇴직, 가족 관계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겪게 됐다[3].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실증적으로 다룬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또한, 경찰관의 조직적 특성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파악하여 조직적 원인 및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방향의 연구는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을 파악하고 조직적인 특성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조직적 특성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일상적 스트레스의 영역을 초과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경우 발생하는 반응과 관련이 있는데, 외상성 스트레스의 징후에는 수면장애, 악몽, 경험한 사건에 대한 회상의 회피 등이 있다[4].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주로 월남전 이후 전쟁피해

자를 중심으로 1970년 무렵부터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최근에는 연구대상에 천재지변,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강간, 인질, 조직폭력 등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그 예측이 어렵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입히며 피해의 후유증이 오래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5].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종 경찰업무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6].

Sewell(1983)에 따르면 미국 경찰관들에게 144개의 일상적 사건 중에서 직접적 폭력 또는 폭력에 대한 위협과 관련된 사건이 경찰업무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Violanti(1996)에 따르면 미국 경찰관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외상사건들은 타살, 상해, 아동 사망 같이 가끔 겪는 일들과 물리적 부상이 기대대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노출되는 것 같은 자주 겪는 업무들까지 다양하다[8].

Miller(1996)에 따르면 1985년부터 1990년에 걸친 뉴질랜드 경찰관의 이혼에 대한 연구는 심리적 문제가 이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69.2%)이었고, 외상을 겪은 사람 중 43%는 외상에 대한 경험이 이혼의 원인이었다고 보고하였다[9].

Mann과 Neece(1990)에 따르면 미국 경찰관의 대략 20-30%가 다양한 수준의 심리적 장애를 수반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경찰 상담가에게 위탁되는 전체 5위에 해당하는 정신과적 문제로 드러났다[10][11].

Robin 등에 따르면, 교외(suburban) 경찰관의 13%가 사기, 장기 결근, 직업적 건강, 조기 퇴직, 가족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2].

## III. 연구 방법

### 1. 조사 대상 및 방법

이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우리나라 경찰관을 모집단으로 하여 전국에서 무작위 추출하였다. 표집된 조사대상자는 전국 23개 경찰서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이었다.

자료의 수집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연구자 및 사전에 교육을 받은 연구보조자가 지방경찰청, 경찰서, 순찰지구대, 파출소 등의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한 후, 향후에 다시 방문하여 작성된 설문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총 1,117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하여 통계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자료를 제외하고 1,045부를 최종적으로 연구에 활용하였다.

## 2. 측정 도구

외상성 사건의 노출에 따른 외상성 스트레스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척도들이 개발되어 왔는데, Horowitz 등(1979)은 외상관련 증상을 자기보고식으로 작성하는 척도인 사건충격 척도(Impact of Event Scale: IES)라는 도구를 개발하였고[13], 이 척도는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14].

IES는 가장 흔하게 보고된 외상과 관련된 심리적 반응 양상들 중 침습 및 회피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IES는 또한 특정 외상 생활 사건의 심리적 영향을 연구한 조사연구에서 사용되었으며, 치료 연구에서 성과 측정을 위해 사용되어왔다[15].

그러나 원문 IES가 PTSD의 핵심 특징 중 하나인 과각성 증상을 측정할 수 없어서, Weiss와 Marmar가 1997년 IES 수정판(Impact of Event Scale Revised: IES-R)을 고안하였다[16].

IES 원판에서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IES 수정판에서는 22문항으로 변화되었으며, 8개의 침습(intrusion) 증상, 8개의 회피(avoidance) 증상, 6개의 과각성(hyperarousal) 증상을 측정하도록 재구성되었다. 채점법 역시 수정되어 IES 원판에서는 지난 1주간의 증상빈도는 4점 척도(0-1-3-5)로 평가하였던 것이 IES 수정판에서는 지난 1주간의 증상심도를 5점 척도(0-4)로 평가하도록 구성하였다. Weiss의 IES 수정판이 나

은 이후 IES 수정판 표준화에 대한 연구가 일본, 프랑스, 중국, 독일 등지에서 진행되었다[17].

우리나라에서는 은현정 등(2005)이 한국어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IES-R-K)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해 본 결과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의 IES-R 표준화 연구와 비교할 때, 신뢰도와 타당도가 우수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IES 및 은현정 등(2005)이 제시한 IES-R-K를 활용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을 파악하였다.

## IV. 연구 결과

여기서는 경찰관의 조직적 특성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조직적 특성은 계급, 근무관서, 근무부서, 근무기간,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 1. 계급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

경찰관의 계급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경사가 16.93으로 가장 높았고, 순경·경장 15.79, 경위 이상 14.35 순이었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대체로 비간부 집단이 간부 집단보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이 높고, 그 중에서 일선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경사 집단이 상대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가장 많이 노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계급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계급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순경경장	15.79	15.15	1.740	.176
경사	16.93	16.54		
경위 이상	14.35	15.20		

### 2. 근무관서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

경찰관의 근무관서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

준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지구대·파출소 근무자가 17.69로 가장 높았고, 경찰서 15.59, 지방경찰청 13.94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선 경찰관서 일수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인데, 이는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외상경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표 2. 근무관서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근무관서	평균	표준 편차	F값	유의 확률
지방경찰청	13.94	15.57	3.412	.033
경찰서	15.59	15.40		
지구대·파출소	17.69	16.31		

3. 근무부서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

경찰관의 근무부서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생활안전 17.18, 수사·형사 16.89, 경비·교통 16.67, 내근 11.09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근 보다는 외근 근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아무래도 외근직 경찰관이 외상경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표 3. 근무부서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근무부서	평균	표준 편차	F값	유의 확률
수사형사	16.89	14.39	5.953	.001
생활안전	17.18	16.53		
경비교통	16.67	15.63		
내근	11.09	13.82		

4. 근무기간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

경찰관의 근무기간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1년 이하 18.45, 2-10년 16.02, 11-19년 15.98, 20년 이상 15.34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근무기간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근무기간	평균	표준 편차	F값	유의 확률
1년 이하	18.45	16.74	.550	.648
2-10년	16.02	15.43		
11-19년	15.98	15.64		
20년 이상	15.34	16.27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근무기간이 적을수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이 높고, 근무기간이 많을수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1년 이하 경찰관의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초임 경찰관들의 경우는 대부분 의무적으로 지구대·파출소 등 외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외상경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아무래도 초임 근무자가 숙련된 근무자들에 비해 외상상황에 대처하는 기술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5. 행정구역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

경찰관이 근무하는 행정구역의 규모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5. 행정구역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행정구역	평균	표준 편차	F값	유의 확률
광역시 이상	15.77	16.41	.702	.551
대도시 (50만 이상)	15.88	16.11		
중소도시 (50만 미만)	16.99	15.57		
군단위 이하	15.07	15.10		

중소도시(50만 이상) 16.99, 대도시(50만 이상) 15.88, 광역시 이상 15.77, 군단위 이하 15.07 순으로 나타나, 중소도시 근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지만 특별한 차이 및 경향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을 파악하고 조직적인 특성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조직적 특성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경찰관의 조직적 특성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조직적 특성은 계급, 근무관서, 근무부서, 근무기간,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경찰관의 계급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경사, 순경·경장, 경위 이상 순이었다.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비간부 집단이 간부 집단보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이 높고, 중간 위치인 경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찰관의 근무관서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지구대·파출소 근무자가 가장 높았고, 경찰서, 지방경찰청 순이었다. 이는 일선 경찰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외상경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경찰관의 근무부서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생활안전, 수사·형사, 경비·교통, 내근 순이었다. 외근직 경찰관이 외상경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근직 보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경찰관의 근무기간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1년 이하, 2-10년, 11-19년, 20년 이상 순이었다.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근무기간이 적을수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이 높고, 근무기간이 많을수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1년 이하 경찰관의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경찰관이 근무하는 행정구역의 규모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중소도시(50만 이상), 대도시(50만 이상), 광역시 이상, 군단위 이하 순으로 나타났고, 특별한 차이

및 경향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연구는 외상적 경험 및 그로 인한 충격에 대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한 후향적 평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기억편견(memory bias)의 가능성에 의한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경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실증적 연구 부족하고 공식적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을 파악하고, 조직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것은 그 자체로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다만 향후에는 이러한 제한점들을 보완하고 많은 후행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 참고 문헌

- [1] Riddle, Robin Thomas, The Relation Between Life Stress, Work Stress, and Traumatic Stress and Burnout and Cynicism in Police Officers,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 Dissertation for Ph.D., pp.64-67, 1999.
- [2] J. M. Violanti and D. Paton, Who Gets PTSD: Issues of Posttraumatic Stress Vulnerability, Charles C Thomas Publisher, Springfield, IL, 2006.
- [3] 신성원, "경찰관의 PTSD 수준 및 대처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2호, pp.266-272, 2011.
- [4] 신성원, "경찰관의 PTSD 수준 및 대처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2호, pp.266-272, 2011.
- [5] 유양숙,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가족을 위한 개입", 사회과학연구, 제4권, 제1호, pp.225-274, 1997.
- [6]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1994.
- [7] J. D. Sewell, "The development of critical life

events scale for law enforcement,"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Vol.11, pp.109-116, 1983.

[8] J. M. Violanti, Trauma, Stress and Police Work, Charles C Thomas Publisher, Springfield, IL, 1996.

[9] I. Miller, Demography and Attrition in the New Zealand Police 1985-1995, Unpublished report: New Zealand Police National Headquarters, 1996.

[10] J. P. Mann and J. Neece, "Workers' compensation for law enforcement relate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Vol.8, 1990.

[11] C. Stephens and N. Lo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he New Zealand Police: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support following traumatic stress," Anxiety, Stress, & Coping, Vol.12, pp.247-264, 1999.

[12] Ben Gree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UK police officers," Current Medical Research and Opinion, Vol.20, No.1, p.101, 2004(1).

[13] M. Horowitz, N. Wilner, and W. Alvarez, "Impact of event scale : A measure of subjective stress," Psychosom Med, Vol.41, pp.209-218, 1979.

[14] S. Joseph, "Psychosomatic evaluation of Horowitz's impact of event scale : a review," Journal of Trauma Stress, Vol.13, pp.101-113, 2000.

[15] J. B. Frank, T. R. Kosten, and E. L. Giller, "A randomized clinical trial of phenelzine and imipramine for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145, pp.1289-1291, 1998.

[16] D. S. Weiss and C. R. Marmar, "The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n : J. P. Wilson, T. M. Keane, Assessing Psychological Trauma and

PTSD, New York : Guilford Press, pp.399-411, 1997.

[17] 은현정 등,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44권, 제3호, pp.303-304, 2005.

저 자 소 개

신 성 원(Seong-Won Sin)

종신회원



- 2001년 2월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법학사)
  - 2003년 8월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석사)
  - 2007년 2월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경찰학, 범죄학, 청소년비행